



## 우비 순트(ubi sunt) 모티프와 상실과 위안의 패턴

### 방랑자(The Wanderer)와 찬기파랑가() 비교

Ubi Sunt Motif and a Pattern of Loss and Consolation A Study on The Wanderer and A Hymn for Giparang()

저자 (Authors)	박윤희 Park, Yoon-Hee
출처 (Source)	<a href="#">동서비교문학저널 (11)</a> , 2004.12, 153-171(19 pages) <a href="#">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11)</a> , 2004.12, 153-171(1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a> The Korean Society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435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4355</a>
APA Style	박윤희 (2004). 우비 순트(ubi sunt) 모티프와 상실과 위안의 패턴. <a href="#">동서비교문학저널 (11)</a> , 153-17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2 12:48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우비 순트(*ubi sunt*) 모티프와 “상실과 위안”의 패턴 — 「방랑자(The Wanderer)」와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비교 —

박 윤 희  
(동국대)

### I

본 논문은 고대 영국시 「방랑자(The Wanderer)」와 신라 향가(新羅 鄉歌)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대영국 서정시사에서 지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학적 모티프인 우비 순트 모티프(*ubi sunt* motif)<sup>1)</sup>를 통하여 그린필드(Stanley B. Greenfield)가 영국 고대 비가(悲歌; elegy)의 공통적 특징으로 제시하였던 “상실과 위안(loss and consolation)”의 패턴이 신라 향가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반영되고 이해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영문학도의 관점으로 신라향가를 순수 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국문학도가 읽어

---

1) *UBI SUNT* (Latin, "Where are....?"): A literary motif dealing with the transience of life. The name comes from a longer Latin phrase, "*Ubi sunt qui ante nos fuerent?*" [Where are those who were before us?], a phrase that begins several medieval poems in Latin. The phrase evokes the transience of life, youth, beauty, and human endeavor. ([http://web.cn.edu/kwheeler/lit\\_terms\\_U.html](http://web.cn.edu/kwheeler/lit_terms_U.html))

내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향가 읽기”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서고전시가(東西古典詩歌)의 심층적 비교를 이 모티프의 맥락에서 연구함으로써 신라향가에 대한 새로운 면서도 다양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며, 동시에 순수 국문학적인 향가 이해와 해석에 대한 비판적 조언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향찰(鄕札)에 대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신라 향가를 접근할 때 그 언어적 측면으로 인해 자칫 오류의 바다에 빠질 위험성이 항상 상존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것이다. “향가의 문학적 향유는 표기 수단인 향찰의 온전한 해독과 그 산물인 형성원리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고 이종대가 지적하듯이(113), 원전의 정확한 해독 없이는 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중이 주장하듯이 “어학적 실적들을 문학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서 문학적인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해독과 주석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는 “문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연구결과는 다시 어학자들에게 연구과제로 제시하여야 보다 발전적인 해석과 주석을 기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151).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영문학도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연구결과는 다시 [국문학도]들에게 연구과제로 제시[되어] 보다 발전적인 해석과 주석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랑자(The Wanderer)』와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는 공통적으로 과거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로서, 장르 면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정시(lyric) 중에서도 비가(悲歌; elegy)에 가까운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린 필드(Stanley B. Greenfield)에 따르면, 고대 영국문학의 비가<sup>2)</sup>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고대 영국비가는 내용과 태도에 있어 다소 기독교적 또는 종교적 경향을 보이지만, 이 시들은 두 가지 공통적인 점을 갖는다. (1) 과거와 현재 처지의 비교, (2) 덧없

2) 일반적으로 비가(elegies)로 분류되는 고대 영국시는 모두 *Exeter Book*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시로는 "Ruin," "Wanderer," "Seafarer," "Resignation," "Riming Poem," "Wulf and Eadwacer," "Wife's Lament," "Husband's Message," 그리고 "Deor"가 있다.

는 지상의 영화, 기쁨, 그리고 안녕(安寧)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각. 비록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졌지만, 이 시들은 모두 상실과 위안의 패턴을 한 중심적인 특징으로 보여 준다. . . .

Although they[Old English elegies] are to differing degrees secular or Christian in their content and attitudes, they have in common two overlapping concerns: (1) a contrast between past and present conditions, and (2) some awareness of the transitory nature of earthly splendor, joy, and security. Although structured in different ways, they all present as a central feature a pattern of loss and consolation. . . . (Greenfield, *Critical* 214)

현재와 과거 삶의 대조, 그리고 지상의 덧없음을 자각하는 양상이 모든 고대 영국 비가에서 다루어지는 공통적인 주제이며, 나아가 “상실과 위안”이라는 패턴으로 시가 진행되고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랑자」와 「찬기파랑가」 또한 예외가 아니다. 현재와 과거의 비교, 죽은 이에 대한 추모의 감정, 그리고 깨달음의 결론 등 그린필드가 제시했던 “상실과 위안”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 II

11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랑자」는 비교적 조야(粗野)한 고대 영문학기의 작품 중에서 그중 문학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방랑자」의 시적 구조와 주제에 대해 많은 비평적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된다. 하나는 이교도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의 병렬로서 “방랑자,” “현자(the wise man),” 그리고 “시인(the poet)” 등 작품 속 세 화자에 의해 “불확실한 지상의 삶”과 “확실한 천상의 삶”의 대조가 시 속에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The theme of the poem is] the contrast between earthly insecurity and heavenly security: a contrast stated at the beginning, developed in the body and summarized at the end of the poem”) (Huppé 526). 다른 하나는

『방랑자』의 시인이 극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쓰러린 경험을 통해 인생사의 지혜를 얻게 된 방랑자가 순전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지상사의 덧없음에 대한 독백을 하는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 in *The Wanderer* the poet has created a dramatic situation in which 'eardstapa,' an 'ānhaga' who has acquired wisdom as a result of his experiences, delivers this poem as a monologue, wholly Christian in tone, in which he contrasts the folly of emphasis on earthly things with the wisdom of emphasis on Heaven”) (Lumiansky 105). 후자의 견해와 비슷한 관점에서 칼더(Daniel G. Calder)는 『방랑자』를 전적으로 화자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심리적 면에 집중함으로써 지상사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주장 한다 (“*The Wanderer* is a poem which focuses almost entirely on the mind”) (270). 반면에, 최근의 견해로서, 힐(Thomas D. Hill)은 『방랑자』의 시인이 무사 신분인 “방랑자”의 한탄과 깨달음을 통하여 작품 속에서 앵글로 색슨족들의 문화적 전통이나 삶의 일부분인 행복의 이상에 대한 회의 또는 은근한 경멸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the poet is expressing a suspicion of and an implicit contempt for the ideal of 'happiness' that was part of the literary culture of the Anglo-Saxons and presumably of their life as well”) (236-237). 비록 시가 극기적인(stoic) 무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남성적인 위엄을 깎아 내리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할 수 있는 허가된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는 무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안락이나 행복에 집착하거나 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We may therefore imagine that poetry itself is a kind of privileged medium in which warriors can lament openly without demeaning their masculine dignity. . . . As far as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se stoic ideals is concerned, it is obvious that a warrior cannot let himself become too attached to comfort and well-being if he is to maintain his status as a warrior”) (Hill 249).

『방랑자』에 대한 비평적 경향을 일별할 때, 공통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행복과 크게 대조되는 현재의 상실과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방

랑자”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곧 “상실과 위안”의 패턴이라는 것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영국시사에서 전형적으로 보여 지는 이와 같은 “상실과 위안”의 패턴이 유사한 장르의 고대 한국시사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본 논문의 주요한 주제이다.

「방랑자」는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비참한 오늘의 고통과 지상세계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우비 순트(*ubi sunt*) 모티프를 그 바탕에 깔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취하는 시이다.

Where is the horse? Where the young warrior? Where now the gift-giver?  
Where are the feast-seats? Where all the hall-joys?  
Alas for the bright cup! Alas byrnie'd warrior!  
Alas the lord's glory! How this time hastens,  
grows dark under night-helm, as it were not! (93-97)

군마(軍馬)는 어디에 있고, 젊은 무사는 어디에 있으며, 군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연회장의 좌석들은 어디에 있고, 모든 연회장의 기쁨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아, 그 빛나던 술잔! 아, 감옥 입은 무사! 아, 군주의 영광! 마치 아닌 것처럼,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흘러 밤의 그늘 속에 어두워진단 말인가!

과거의 용맹스러웠던 군마와 무사들, 그리고 왕은 지금 다 어디에 있으며 궁중에서 벌어지곤 했던 흥겨운 주연(酒宴)의 자리는 모두 사라지고 단지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가? 라는 한탄 속에 이 방랑자는 지상사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코미타투스(*comitatus*)<sup>3)</sup>의 보호막이 사라진 채 추운 겨울 바다를 떠돌며 홀로

3) *comitatus*는 중세유럽의 봉건주의와 비슷한 유형의 군신간의 관계를 일컫는 제도로서 고대유럽의 게르만족 계통 집단의 원시적인 사회조직체제이다. 한 집단의 장은 소속원들을 외부 집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동시에 의식주를 해결해주며, 반면에 소속원들은 집단의 장에게 충성의 여러 의무를 다한다. 따라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제도는 지극히 실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거대통합체가 아닌 소집단간의 적자생존의 경쟁체제 하에서 집단의 단합과 생존을 위한 기본 체제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방랑자는 소속집단의 장이 죽음으로써 그 집단이 해체되는 비운을 맞이하였고 결국은 사회의 *outcast*가 되어 힘겹고도 고독한 방랑의 길을 걷고 있는

끝없는 방랑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의 중심인물인 외톨이 방랑자(“the lone-dweller,” “the earth-stepper”)의 영화로웠던 과거에 대한 회한과 한탄을 통해 시의 화자(narrator)는 극기(self-restraint)와 인내(endurance),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의 덧없음(the fleeting nature of all earthly things)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비 순트(*ubi sunt*)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고대와 중세의 영국 시가는 체념 속에 결국은 천상의 창조주에게로 향하는 詩 속 화자나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상실과 위안”을 보여주며, 그럼으로써 독자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찬기파랑가』와 관련하여 이 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죽은 과거의 군주에 대한 사모(思慕)의 정(情)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모의 정은 명분을 중시하는 동양적 관점에서의 인자한 군주와 충성스러운 신하와의 관계가 전혀 아니다.

So must I my heart--  
often wretched with cares, deprived of homeland,  
far from kin--fasten with fetters,  
since long ago earth covered  
my lord in darkness, and I, wretched,  
thence, mad and desolate as winter,  
over the wave's binding sought, hall-dreary,  
a giver of treasure, where far or near  
I might find one who in mead-hall  
might accept my affection, or on me, friendless,  
might wish consolation, offer me joy. (19-29)

고향땅을 빼앗기고 친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종종 근심걱정으로 비참해지는 나는 족쇄로 나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만 한다. 오래 전에 나의 군주는 어두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겨울처럼 삭막하고 불행한 나는 차가운 파도를 헤쳐 나가 인근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외톨이인 나의 충성심을 받아주고 그럼으로써 나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고 나를 보살펴줄 군주를 찾아가야만 한다.

---

것이다.

죽은 군주에게 보내는 이 방랑자의 사모의 정은, 충(忠)을 근본으로 하는 동양적인 군신지도(君臣至道)와는 전혀 다르게, 결국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극히 실리적인 생각에서임이 위 인용문에서 명백하게 보여 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외로운 방랑자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줄 강력하면서도 관대한 군주가 필요한 것이다. 그 이면의 해석은 어찌하던 간에 군주에 대한 사모의 정은 꿈속으로까지 이어진다:

When sorrow and sleep at once together  
a wretched lone-dweller often bind,  
it seems in his mind that he his man-lord  
clasps and kisses, and on knee lays  
hands and head, as when sometimes before  
in yore-days he received gifts from the gift-throne.  
When the friendless man awakens again,  
he sees before him fallow waves,  
sea-birds bathing, wings spreading,  
rime and snow falling mingled with hail.  
Then are the heart's wounds ever more heavy,  
sore after sweet--sorrow is renewed--  
when memory of kin turns through the mind; (40-52)

[이 불행한 외톨이가 슬픔에 젖어 잠이 들었을 때면, 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옥좌로부터 선물을 하사받을 때와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생전의 군주를 포옹하고 키스하는 꿈을 꾸곤 한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눈앞엔 시퍼런 파도만이 출렁이고, 바닷새들은 날개를 펼치며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있고, 서리와 눈이 우박과 뒤섞여 내린다. 그럴 때면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슬픔으로 되새겨진다.]

과거 군주에게서 하사품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이 재현되었듯이 이 꿈의 장면에서조차 불행한 방랑자는 철저히 물질적이며 실리적이다. 물론 이러한 지상에서의 덧없는 물질적 행복의 추구가 궁극적으로는 백일몽으로 끝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천국에서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인이 노리는

주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실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 비기는 충성(忠誠)과 의리(義理)를 바탕으로 명분과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동양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색다른 유형의 추모(追慕)적인 한탄이라 하겠다.

과거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한탄 속에서 이 지상에서 자신을 보살펴줄 새로운 군주를 찾는데 실패한 이 불행한 “방랑자”는 결국 쓰라린 경험을 통한 자기 통찰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덧없는 이 지상 사(事)에 미련을 버리고 (“Here goldhoard passes, here friendship passes, / here mankind passes, here kinsman passes: / all does this earth-frame turn worthless!”; 109-111),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상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다 (“Well will it be / to him who seeks favor, refuge and comfort, / from the Father in heaven, where all fastness stands”; 115-117).

### III

「방랑자」와 「찬기파랑가」는 뛰어난 자연 묘사와 더불어 서정성이 짙게 배어있는 고전 시가로서 여러 면에서 비교와 대조를 보인다. 이 두 시는 소위 비가(悲歌; elegy)로 분류될 수 있는 고전시가로서 자연을 배경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방랑자」의 중심 모티프인 우비 순트(*ubi sunt*) 모티프의 관점에서 「찬기파랑가」를 분석하고자 할 때 두 시는 일단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번역과 해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시적 해석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적인 면에서 큰 논란 없이 정전(正典; canon) 현대영어 텍스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방랑자」와는 달리 「찬기파랑가」에 대한 현대어 해독(解讀)은 비록 양주동의 소위 원형 상징적인 해독이 정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김완진, 이임수 등의 소위 개인 서정적인 해독 또한 “찬기파랑가” 연구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양주동 현대역

구름을 열어 제치므로 나타난 달아  
 흰 구름을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닌가?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도다.  
 지금부터 냇물의 조약돌에 갇들인  
 기파랑이 지니시던  
 인품의 한 구절이나마 따르고 싶구나.  
 아아, 잣나무 가지처럼 그 기품이 드높아  
 서리에도 굽히지 않을 화랑의 장이여  
 (<http://kkucc.konkuk.ac.kr/~shindh/siga/hyang01.htm>)

▶김완진 현대역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갈이여.  
 (<http://kkucc.konkuk.ac.kr/~shindh/siga/hyang01.htm>)

『찬기파랑가』는 신라 경덕왕(742~764) 때 충담(忠談)이 화랑 기파랑(耆婆郎)을 추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로서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에 실려 있다. 여느 향가와는 달리 『찬기파랑가』와 직접 관련된 부대설화(附帶說話)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안민가(安民歌)』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덕왕이 충담사

에게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뜻이 높다고 하는 데 과연 그러냐고 물으니 충담사가 그렇다고 하였다는 기록뿐이다. 기파랑은 단지 그 이름과 10행에 나오는 “화반(花判; 화랑의 長)”에 의하여 화랑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가 화랑으로서 어떤 일을 해서 찬양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연 알 수 없다. 기파랑이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불전(佛典)에 나오는 기파(耆婆; Jiva)라는 설, 표훈대덕(表訓大德)이라는 설, 당시의 시중(侍中)이었던 김기(金耆)라는 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신, 창조신, 생산신 등의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sup>4)</sup> 또한 이 시의 창작배경을 당시의 시대상과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sup>5)</sup> 갑갑기는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서 영웅을 기리고 기대하는 ‘모현(慕賢) 모티프’를 제시하였는데, 그 또한 시대적 창작배경을 주장한 학자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충담사는 “남다른 우국충정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국민계도’ 및 ‘정의로운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 또는 그럴 능력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향가의 시식에 담아 그리움(慕賢)으로 승화한 작품”임을 확신하고 있다(10). 윤영옥 또한 『찬기파랑가』에서 “찬양된 기랑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불릴 수 있는 숭고하고 장엄한 신의 송가(頌歌)이던 것이 한 인간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뀔 때, 이는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국문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해 영문학도로서의 본 필자는 혼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모죽지랑가』와는 달리, 『찬기파랑가』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 문학, 문화적 사실은 신라 경덕왕 시절에 충담사라는 승려에 의해 지어졌으며, 작

4) 보다 구체적인 『찬기파랑가』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이임수, pp. 206-212를 참조할 것.

5) 박노준은 경덕왕대의 시대상과 화랑을 연관 지어 충담이 그 무렵 쇠퇴의 길로 들어선 화랑단의 형세를 애석하게 여겨 이에 대한 아쉬움, 나아가 화랑단의 재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짓게 된 것이라 하였으며 (『신라 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경덕왕 대를 병든 시대라 규정한 김승찬은 이를 치유할 인물은 불전설화에 나오는 기파와 같은 화랑밖에 없다고 생각한 충담이 그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지은 것이 이 작품이라 하였다(『한국상고문학연구』, 제일문화사, 1978). 양희철 또한 “耆婆라는 인명은 佛經의 名醫라는 의미를 살려 국가 사회적 病弊에 대한 治療를 계산한 변용으로 보인다”(46, 50)고 주장하여 당시의 시대배경과 연결진다.

품 내에서 언급된 ‘화판(花判)’이라는 호칭에 의해 기파라는 인물이 화랑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뿐이다. 『방랑자』에 나오는 한 이름 없는 무사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시 외적인 연구와 더불어 시 내적인 다양한 해석 또한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물의 대조, 즉, 달, 그리고 환한 달빛으로 가득 찼을 숲, 새파란 냇물, 조약돌, 잣나무와 서리, 흰 구름 등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시적 대상인 ‘기파랑’의 인간적인 속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하늘에 높이 뜬 달과 같은 숭고함’, ‘새파란 냇물의 숲과 같은 깨끗함’, ‘조약돌과 같은 원만함’, ‘잣나무’와도 같이 높은 기상을 지닌 화랑으로 연결되어 형상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자연의 이미지리(imagery)를 내포하는 시적 함축성이 뛰어난 시어들을 10행으로 정제된 시 형식 속에 담아 서정시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물론 11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랑자』와는 달리 10구체 향가인 『찬기파랑가』는 그 압축과 간결성, 그리고 더욱이 룬(Rune) 문자나 고대영어(old English)와 같은至難한 해독 과정을 요하는 향찰 언어 체계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상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임수는 다음과 같이 향가 연구에 있어서의 일반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향찰문자의 해독에 기인한 다양성은 향찰의 구결 등 어학적인 연구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 셈이고, 시의 해석에 대한 다양성은 문학연구의 장점이며 상상력의 확대이긴 하지만 지나친 발상들은 작가와 그 시대 사회성에 부합하는 미적 문학적 안목에서 정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곧 어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향찰해독이 가능하더라도 문학적으로 (시작품에 있어서) 가능할 때에만 수용해야 할 것이며, 문학연구에 있어서는 문학적으로 그러한 해석이 더 타당하거나 좋을 수 있더라도 어학적인 해독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발상들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05-206)

이와 같이 지나친 해석의 난무를 우려하면서 어학적, 문학적 해석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이임수는 『찬기파랑가』의 이미지 전개를 참고서에서처럼의 일목요연함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sup>6)</sup>

\*제 1단락(1-3행): 천상의 이미지

달: 서방세계로 열반하는 기파랑의 상징

흰 구름: 이상세계, 천상세계

\*제 2단락(4-8행): 지상의 이미지

숲: 달이 멈춘 곳, 기파랑이 살던 현실세계에 대한 환기작용

나루터: 현실의 이동공간이며 차안(此岸, 이승)과 피안(彼岸, 저승)의 이동공간

수모넷가: 기파랑과 우리들이 살던 이승의 현실공간

조약돌: 낭이 지니던 작은 마음 한 조각, 이승의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한계

\*제 3단락(9-10행): 기파랑에 대한 찬(讚)

жат나무 높은 가지: 낭의 위대함, 서리 내리지 못하는 높은 경지

(대비): 서리 내리는 이 땅의 평범한 존재(작가, 일반인)들의 한계 (221)

“지나친 추단을 함은 오히려 작품의 이해에 제약이 된다”(206)는 주장을 펼쳤던 이임수 역시 과도한 추단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지나친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럼으로써 자의적인 재창작의 遇를 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낭의 죽음이란 현실 앞에 오열하던 작가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시선은 자연의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에는 달이 떴고 구름이 흐른다. 삶의 무상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하늘의 달은 곧 이승을 떠나 서방으로 열반하는 기파랑의 모습 같기도 하다”(222)라는 첫 3행에 대한 해설은 상상이 곁들인 극히 자의적이며 감상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숲은 낭이 머물던 현실공간을 일깨우고 나루터를 통한 이승과 저승의 이별 공간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222)라는 설명에서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하천 어귀의 나루터 또는 성서에 나오는 요단강 어귀의 나루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6) 이임수의 현대어 해독은 다음과 같다. “울리지침에 / 나타난 달이 / 흰구름 좇아 떠가는 어디  
쭈 / 모래 가른 나루터에 / 기랑의 모습같은 숲이여 / 수모넷가 조약돌에 / 낭이 지니시던 마음  
흰끝이라도 따르렵니다. / 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 서리 모르실 화랑이시어!” (219)

양주동은 「찬기파랑가」를 화자와 달과의 문답체 暗喩로 기상천외한 詩法을 보여준 훌륭한 시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화랑으로서 기파랑의 고고한 인품을 기립에 있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자연물인 달과의 문답 형식으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특히 국문학에서는 흔치 않은 자연물과 사람과의 문답식 형식이라는 주장)는 이후 국문학계의 정설로 받아 들여져 양주동 해독을 기본으로 다양한 현대어 翻譯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임기중에 의해 현대어로 해독된 「찬기파랑가」를 기초로 고대 영국시의 주요 모티프인 우비 순트 모티프가 깃들여있는 비가적인 순수 서정시로서 이해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 시 또한 서양고대 비가에서 나타나는 “상실과 위안”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구름을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잠겨 있네!  
 일오(逸鳥) 냇가 조약돌에서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으려 하네”  
 아, 잣가지 드높아  
 서리를 모를 그대 모습이어! (임기중 해독)

임기중 해독 역시 양주동의 문답형식의 구조를 따르면서 그의 해독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를 굳이 문답식 형식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더욱이 인용 현대어 번역 자체도 무늬만 문답식이지 실상은 문답식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즉, 2행의 “달이”라는 표현은 3인칭의 표현이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 2인칭의 표현은 아닌 것이다. 만약 문답식에 맞게 이를 2인칭 “달아”로 표현한다면 3행 또한 “흰구름 쫓아 어디로 떠가느냐”로 고쳐져야만 한다. 양주동 해독에 기초한 英譯詩도 마찬가지로 3인칭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moon that pushes her way  
Through the thickets of clouds,  
Is she not pursuing  
The white clouds?

Knight Kilbo once stood by the water,  
Reflecting his face in the blue.  
Hence forth I shall seek and gather  
Among pebbles the depth of his mind.

Knight, you are the towering pine,  
That scorns frost, ignores snows.<sup>7)</sup>

이 英譯詩에서도 달과의 문답식이 아니라 화자의 회한 어린 독백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 4행의 질문은 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자 자신에게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이다. 김완진, 이임수의 해독에서 보듯이 이 시는 결국 시 속 화자의 독백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찬기파랑가』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구름 낀 어느 밤 생각에 잠겨 일오(逸鳥) 냇가 조약돌 받을 견고 있던 화자가 문득 밝은 빛에 하늘을 보니 잠시 구름이 걷히면서 그 사이로 휘영청 환한 달이 나타나고 높은 하늘 위를 흐르는 체트 기류에 하얀 구름이 휘날리듯 달리는 모습이 마치 달이 구름을 쫓고 있는 형국으로 묘사된다(1-3). 이러한 순간 포착의 신비로운 장면은, “spots of time”이 형상화되는 위즈워드의 시에서처럼, 화자의 기억 속에 담겨있던 기파랑이란 인물을 회상시키게 된다(4-5). 이어 주변을 둘러보나 마침 그가 생전에 거닐거나 노닐던, 기파랑의 추억이 질게 깃들어있는 냇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며, 이에 그의 고매한 인품을 생전에 흠모하던 화자는 그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가 있었어야 할 그 빈자리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면서도 화자는 다시 한 번 그가 생전에 지녔던 고귀한 기상을 따르고 본받고자 한다(6-8). 기파랑의 인품을 회상하며 반추하고 있던 이 순간, 화자는 너무도

7) 『한국고전문학전집 1권 - 향가/고려가요 편』, 81-82.

높아 서리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잣나무 가지와 같이 기파랑이 너무도 숭고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9-10). 그러나 마지막 2행은 이 시의 결론으로서 상실감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새롭게 깨달은 찬탄의 감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그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도 컸음을 새삼 느끼는 상실과 아쉬움의 유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믿고 따르고 본보기로 해야 할 의지와 위안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같은 해석으로 이 시를 고대 영국시가에서처럼 개인적인 비가(*elegiac poem*)로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고대 영국시가인 『방랑자』와 고대 한국시가인 『찬기파랑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비 순트 모티프의 형식으로 상실의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깨달음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소위 “상실과 위안의 패턴”을 보여준다. 노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찬기파랑가』에서는 여전히 상실의 감정이 여운을 남기지만, 이 시가 단지 10행으로 정밀하게 축약되어 표현되어져 있다는 점과 이 노래가 추념의 찬가라는 점을 상기할 때, 기파랑은 이 시 속의 화자에게 그 고매한 인품으로 하여금 용기와 위안을 주는 대상으로 남게 된다. 다만 『방랑자』에서처럼 『찬기파랑가』는 비록 지상에서의 세월의 덧없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 어떤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뚜렷하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이 점이 바로 『찬기파랑가』가 뚜렷한 교훈적 메시지(*didactic message*)를 담고 있는 『방랑자』와 극명하게 다른 점이며, 나아가 이 점이 『찬기파랑가』를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적인 비가로 남게 하는 이유이다.

주제어

비가, 우비 순트 모티프, 상실, 깨달음, 위안

### 인용문헌

김갑기. 「慕賢 모티프」-「讚耆婆郎歌」와 「蜀相」을 中心으로 - 『韓國思想과 文化』, 25(2004): 7-31.

김기동 외. 『한국고전문학전집』, 1권. 『향가/고려가요 편』. 서울: 성음사, 1972.

김승찬. 『한국상고문학연구』. 서울: 제일문화사, 1978.

박노준. 『신라 가요의 연구』. 서울: 열화당, 1982.

양희철. 「찬기파랑가의 어문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996): 5-55.

윤영옥. 「찬기파랑가」.

<http://www.koreandb.net/dictionaries/Viewframe.aspx?id=3245&ser=1>

이임수. 「찬기파랑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임기중 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 205-223.

이종대. 「헌화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임기중 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 113-131.

임기중.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서울: 동국대 출판부, 1992.

충담사. 「찬기파랑가」. 『우리의 옛 노래』. 임기중, 편저. 서울: 현암사, 1993.

충담사. 「찬기파랑가」. 양주동 역.

<http://kkucc.konkuk.ac.kr/~shindh/siga/hyang01.htm>

충담사. 「찬기파랑가」. 김완진 역.

<http://kkucc.konkuk.ac.kr/~shindh/siga/hyang01.htm>

Calder, Daniel G. "Setting and Mode in *The Seafarer* and *The Wanderer*,"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72(1971): 264-275.

Glenn, Jonathan A., trans. *The Wanderer*.

<http://faculty.uca.edu/~jona/texts/wanderer.htm>

Greenfield, Stanley B. *A Critical History of Old English Literature*. New York: New York UP, 1965.

Hill, Thomas D. "The Unchanging Hero: A Stoic Maxim in *The Wanderer* and Its Contexts," *Studies in Philology* 101(2004): 233-249.

Huppé, B. F. "*The Wanderer*: Theme and Structure," *JEGP* 42(1943): 516-538.

Lumiansky, R. M. "The Dramatic Structure of the Old English *Wanderer*," *Neophilologus* 34(1950): 104-112.

**Abstract***Ubi Sunt* Motif and a Pattern of “Loss and Consolation”— A Study on “The Wanderer” and “A Hymn for *Giparang*(讚者婆郎歌)” —

Park, Yoon-Hee

(Dongguk University)

Both "The Wanderer" and "A Hymn for *Giparang*(讚者婆郎歌)" show what Stanley B. Greenfield has observed in Old English elegies, "a pattern of loss and consolation." The 'lone-dweller' or 'earth-stepper' in "The Wanderer" laments for what he had enjoyed in the happy past days, recollecting of lost lords, ladies, comrades, and courtly settings. However, after he was afflicted with various hardships, he feels the need for self-restraint, endurance, and an appreciation for the fleeting nature of all earthly things. Through his experience of sufferings, the Wanderer learns a precious lesson for his soul and regain his peace of mind.

"A Hymn for *Giparang*" is one of old Korean poems, *Hyang-ga*, which was composed in the middle of 8th-century. For its brevity, obscurity, and abstruseness (just ten-line song written in old characters now no longer be used), the poem invites a great number of translations and interpretations. Viewed in the light of Old English elegies, however, the theme and structure of the poem become somewhat clearer; it assumes characteristics of an elegiac poem eulogizing a great person of virtues—probably a great warrior—now deceased. The speaker of the poem laments for the absence of his or her hero but is relieved from the thought that he was the very embodiment of virtue and courage.

Key Words

elegy, *ubi sunt* motif, loss, awakening, consolation

박윤희

동국대 부교수 / 영어

pkyh@dongguk.edu

논문투고일: 2004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1일~15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5일